

오피니언

다산포럼

염재호



요즘 서점에 가보면 '패턴 백가지로 영어 완성하기', '일주일 만에 중국어 말하기', '이주 완성 일문법' 등 외국어 학습서가 즐비한 것을 볼 수 있다. 중학교 때에는 안현필 선생의 '삼위일체', 고등학교 때는 송성문 선생의 '영통종합영어'라는 참고 서만을 바이블처럼 갖고 공부했던 우리에게는 금석지감을 느끼게 한다.

영어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무조건 많은 시간을 들이라고 배워왔고, 미국 유학시절을 포함해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영어를 읽고, 듣고, 가르치기까지 하면서도 한계를 느끼는데 과연 이런 요령으로 공부하면 외국어가 쉽게 마스터 될 수 있을까?

요즘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지나치게 요령 중심의 교육을 요구하기 때문에 당혹스러운 경우가 많다. 외국의 경우와 달리 어릴 때부터 다양한 사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학생들은 대학 강의에서도 요점 정리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파워 포인트를 사용해 정제화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방식이 대학에서도 보편화되면서 학생들은 문제를 생각해보기보다는 즉각적인 정보의 흡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심지어 시험보기 전에 교수에게 찾아와서 일일이 요점을 체

암묵지(暗默知)의 축적

크하는 학생들까지 있다. 요점을 외우지 않으면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다고 불안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래사회에서 더욱 둘보이는 지식은 '암묵지'라고 한다. 프로페셔널들은 일반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만 하면 흔히 가진 수 있는 '형식지'(形式知)를 뛰어 넘어 암묵지를 많이 갖고 있어야 남과 다른 뛰어난 문제해결 능력을 보이게 된다.

형식지는 객관화된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화시대에는 도처에서 쉽게 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암묵지는 주관적이고 개인에게 내재화된 지식이기 때문에 쉽게 얻기 어렵다.

정보화 사회가 되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구글이나 네이버 등 다양한 검색엔진을 통해 객관화된 정보는 쉽게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잠인의 손맛과 같이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내재화되어 감추어진 지식은 쉽게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 지식의 넓이와 생각의 깊이 때문에 암묵지를 갖고 문제 해결을 보다 잘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궁리하고 연구하여 진액이 오르도록 하고, 넓게 배우고 들으며 예능에 노닐어거나 잎이 돌아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 깨달은 것을 유추하여 쌓아두고 그 쌓아둔 것을 펼쳐내면 글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문장이 되었다고 인정하게 되니, 이것을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문장이란 급하게 완성될 수는 없다."라고 했다.

21세기에는 누구나 프로가 되고 싶어한다. 하지만 요령만으로 프로가 될 수는 없다. 적은 시간의 투자로 효율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려는 것은 요령에 불과하다. 알맞은 디아제스트 지식이나 널려 있는 형식지의 편린만을 축적해서는 프로페셔널한 문제해결 능력을 가질 수 없다.

똑같은 지식의 섭렵과 깊이 있는 사고의 축적을 통해서만 자기 개인만이 가질 수 있는 암묵지의 생성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끝에 없는 일에 바쁘고 정작 중요한 시간 투자에는 요령만을 앞세우는 요즘 학생들의 공부는 한계가 있다. 이것은 다산 시대나 21세기 오늘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GO 칼럼

현중순



현대 사회에서 양성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정의 정체성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 평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제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지 못한 사회는 너나없이 불평과 불만이 고리를 물 수밖에 없다.

우리 여성들 정신 차려야 한다.

아침마다 문안 드리고 조반 올리던 세상은 흔적 없고 냉장고가 사람살이의 보배고 되어 가족간의 유대감은커녕 '가정'이라는 틀까지 없어졌다.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은 사라지고, 물질과 부에 눈이 먼 부모 밑에서 가정교육이

흘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피해 병원으로 '피난'은 온 것이었다.

이틀 후 찾아온 건강한 체격의 며느리는 힘겹게 침상에 누워있는 시아버지에게 명령조로 큰소리를 쳤고, 그 광경을 보고만 있을 수만은 없어 필자는 '여보세요. 우리 한국에는 당신 같은 며느리는 없어요'라고 말했다.

또 한쪽 구석에서 서 있는 사십대 중반의 남자를 향해 "보자 하니 당신의 아버님이신 듯 한데 어찌 이 불효 맘심한 행동을 보고만 있을 수 있어요?"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나무라면 그만 떠나 버릴 거요"라는 대답뿐이었다. 아내가 떠

기고

최연주



"너의 꿈을 노래하라!"라는 주제로 열린 '2010 광주청소년페스티벌'이 지난 4일 광주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국의 음악 꿈나무들이 함께 모여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며 우정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었다.

올해로 5회째인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 참작곡 경연대회는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13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 뮤지션 75개팀이 참가해 치열한 1, 2차 예선을 거쳐 모두 10개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다.

지난 5월 서포터즈 발대식을 시작으로 청소년 음악동아리 지원사업, 유명

하게 된다.

광주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일본 문화예술의 도시, 첨단과학산업의 도시다. 민선 5기를 맞아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 참여와 소통을 기치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제8회 광주비엔날레가 개막되고 G20 재무차관 회의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역대 최고의 모범적인 대회로 개최하기 위해 청결·질서·친절 운동을 펼치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아가 100억불 수출도시, 5·18 민주화 도시로서 도시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전통·가족문화 변질 안되게 여성 지혜 필요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가족구성원이 되어 버린 인스턴트식 혼례 문화가 가정의 정의를 퇴색시킨지 오래다.

그러나 하면 다국적·다문화 시대를 접한 세대의 구성원 모두는 갈등과 혼돈 속에서 혼매고 있는 것 같다.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삶이라 그런 것만은 아니다. 문화를 통해 외국 며느리들이 시부모님과 남편을 정성껏 모시는 모습들을 보면 한국 여성들은 정신 차려야 하겠다.

하지만, 봉건적인 전통사회에서 국제 결혼이란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시절과 비교하면 세상은 너무 많이 변했고 그 변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회비가 교차되는 삶을 살고 있다.

필자가 2년 전 가족의 병간호를 위해 요양병원에 머물러 있을 때의 일이다. 백수에 가까운 노인이 한복 바지의 허리춤을 움켜쥔 채 병원 문을 밀치고 가까스로 들어서더니 힘겹게 입원수속을 마쳤다. 입원 동기는 잊은 비뇨기 질환. 외국 며느리의 눈치를 보면 살아왔던

날까봐 말 한마디 못하고 서 있는 그 아들은 이 땅에서 죽어야마땅하다.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은 근본을 아는 일이다. 우리 인간사회에는 인륜이 있고 분명한 위계질서가 있다. 늙고 별을 었다 하여 멀시받고 소외받는 가족이 뒷전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두루 살펴야 한다.

한국 역사에서 우리의 얼을 지키며 살아온 한국 여성의 삶은 그 어느 나라 여성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던가. 우리 한민족의 여성들은 다국적 문화가 우리의 뿌리깊은 전통과 가족문화를 변질시키지 않도록 지혜와 용기를 모아야 할 것이다.

한국 여성들은 건강한 사회와 행복한 가족문화가 꽂힐 수 있도록 자리를 지키며 우리 역할을 잊지 않고 가정과 나라를 지키는 정의로운 일에 함께 매진해야 할 것이다.

〈시민법인 사회정의실현 시민연합

광주·전남지부 회장〉

꿈을 노래한 행복한 청소년!

기타리스트 신대철씨와 함께하는 뮤직 캠프, 이전 대회에서 수상한 이후 왕성하게 활동중인 윈디캣 등이 출연한 프리페스타 등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본 행사는 화합의 청소년 하모니로 더욱 빛났다. 음악적 끼기 뽐내는 뮤지션 75개팀이 출연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13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 뮤지션 75개팀이 참가해 치열한 1, 2차 예선을 거쳐 모두 10개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다.

전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광주의 음악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환경조성이 힘을 모을 때,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기반을 다지고 세계속에 문화명품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줄 것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나방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고 했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이자 나라의 보배다. 그들이 희망을 품고 개인의 장점과 특성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격려와 사랑의 힘을 더해줄 것이다.

이번 창작곡 경연대회에서는 서울·경기연합의 록그룹 FM팀이 'For You'를 열창해 대상을 차지했고, 본선에 오른 10개팀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공동앨범을 제작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12일 서울 흥대 앞 상상마당 라이브 흥에서 쇼케이스를 가졌다. 대상과 금상 수상팀은 광주MBC 문화콘서트 '난장'에 출연해 신인 뮤지션으로 데뷔

위해 문화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문화와 음악이 살아 숨 쉬는 멋들어진 문화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년 음악동아리의 저변을 확대하고 무대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창작동아리의 활성화는 문화창작 소로서 음악인구를 확산시켜 문화수도의 밀거울이 되어줄 것이다.

전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광주의 음악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환경조성이 힘을 모을 때,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기반을 다지고 세계속에 문화명품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줄 것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나방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고 했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이자 나라의 보배다. 그들이 희망을 품고 개인의 장점과 특성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격려와 사랑의 힘을 더해줄 것이다.

가을밤 풀벌레의 하모니가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 건강하고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광주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국도 질주 컨테이너 차량 잠금장치 고정해 사고 막아야

커 운행하면 차량에서 덜컹거리며 굉음이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컨테이너를 적재할 때 고정되는 잠금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일부 운전자들의 괜찮겠지 하는 안전불감증으로 고정안전 잠금장치 고리부분을 단단히 고정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이 문제다. 이 때문에 대형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분들은 되도록 잠금장치를 단단히 고정해 얘기 치 못한 대형사고를 막아야 할 것이다. 컨테이너를 고정하는 고리부분을 단단히 고정시

▲정현창·광주시 광산구 왕동

보기 되지 못하고 담배연기는 실내 공기로 오염시켜 간접흡연으로 인해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

학원도 학생을 가르치는 공적 성격을 갖는 만큼 학교에 준하는 질서나 규칙이 따라야 한다. 학원은 수강생만 놀려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것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수강생의 건강과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학원을 내에서 흡연하는 것은 절대 삼가야 할 것이다.

▲유일숙·광주시 동구 수기동

시설

이젠 보육 서비스마저 소외 당하는 전남

최근 농어촌 지역의 인구 급감과 보육

주민 샐이다.

지금 농어촌은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인구 감소의 악순환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이 바로 농어촌이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보육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육 서비스 지원이 농어촌 지역에 우선돼야 하는 것은 당연히 당연하다. 그럼에도 정부의 국공립 보육시설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전국 11개 군지역에 대한 대책부터 서둘러야 한다. 이는 형평성의 차원을 넘어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물론 영유아 수에 따라 보육시설 건립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이럴 경우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매년 급감하는 농어촌은 더욱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 설령 인구비율에 의한 지원 원칙에 따른다 해도 전남이 이렇게까지 소외당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이 같은 전남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미비는 보육 서비스의 수도권·집중 때문이다.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신축된 국공립 보육시설 274개 중 130개가, 올해 신축 계획인 42개 가운데 15개가 경기도에 집중됐다. 이제는 경제뿐만 아니라 복지정책도 수도권 위

장, 노사간의 상생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선, 8만대의 증산은 수출의 전진기지로서 도약을 의미한다. 50만대 양산 체제는 경기도 화성공장의 60만대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내수 역시 힘찬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스포티지R, K5 등을 연달아 히트 상품 반열에 올리며 현대차를 제치고 처음으로 '내수 1위'에 등극했다. 이는 해외 수출 1위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특히 지역 협력업체의 매출 증대와 함께 고용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에서 기아차 광주공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하니 경영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지난달 말 '20년 연속 파업'의 고리를 끊고 무파업 임단협을 타결한 기아차가 이번에 또 다시 합의함으로써 노사의 상생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기아차의 역동적인 성장과 노사 상생에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

無等鼓

최근 2주간 네도록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벌어진 다오위다오(鯽魚島·일본 명센카루 열도) 영토싸움은 일단 중국의 승리로 끝났다.

다오위다오는 타이완(臺灣)에서 북쪽으로 185km, 오키나와에서 서쪽으로 420km 떨어져 있어 일본보다는 중국에 더 가깝다. 지역적 열세에도 일본이 기회만 생기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다오위다오의 중요성 때문이다. 다오위다오 주변 해저에는 석유 등 천연자원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중·일 양국은 영유권을 확장하는 것은 다오위다오의 중요성 때문이다.

다오위다오 주변 해저에는 석유 등 천연자원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중·일 양국은 영유권을 확장하는 것은 다오위다오의 중요성 때문이다. 다오위다오 주변 해저에는 석유 등 천연자원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중·일 양국은 영유권을 확장하는 것은 다오위다오의 중요성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 7일 다오위다오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찰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중국 측 선장과